

효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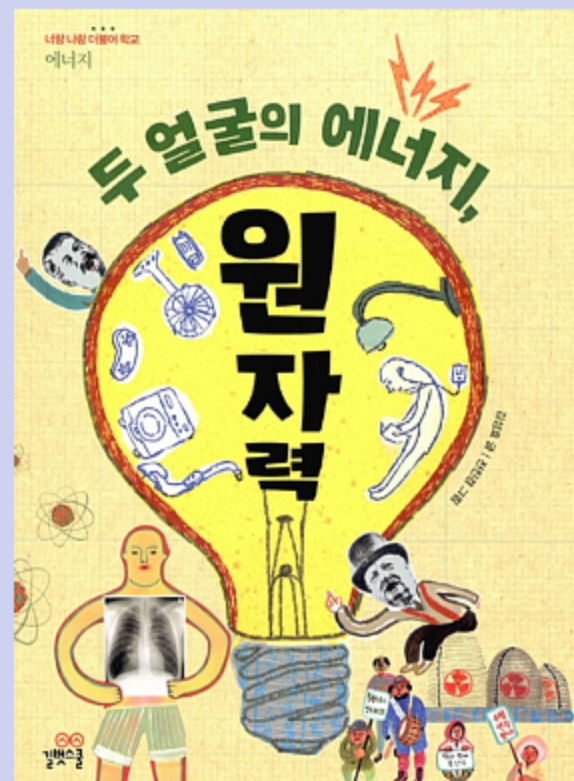
5학년

테마독서 "과학"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〈두 얼굴의 에너지, 원자력〉 김성호 / 길벗스쿨

미국 원자력 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전 강대국이 된 한국! 전기가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통해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의 이면을 볼 수 있어요. 원자력에 대한 의혹들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.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



〈데굴데굴 달걀〉 현수랑 / 매직사이언스



일상생활에서 달걀은 즐겨 먹는 것 중 하나로, 흔히 식재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면 달걀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? 닭은 왜 달걀을 낳는 걸까요?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달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하다 보면 달걀에 대해 생겼던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거예요. 주인공 알알이와 함께 달걀의 세계에 푹 빠져보세요.

효천

5학년

테마독서 "과학"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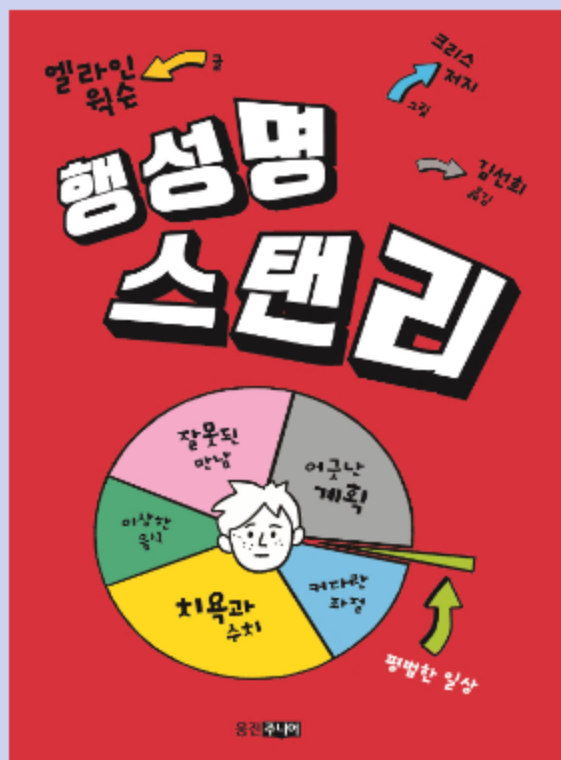
<슬픈 노벨상> 정화진 / 파란자전거

인류를 구하고 평화에 공헌한 노벨상은 우리에게 대단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노벨상을 받은 과학 기술들을 살펴보다 보면 노벨상이 슬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끝없는 발전을 위한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재앙이 있기 때문이에요. 발전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좋을 수는 있지만 멀리 봤을 때 미래 후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.



<행성명 스탠리> 일레인 워슨 / 웅진주니어

스탠리는 말썽꾸러기 동생 프레드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방법들을 터득했어요. 과학을 좋아하는 스탠리가 터득한 방법들은 벤다이어그램, 차트, 그래프 등으로 정리했죠. 스탠리는 프레드가 벌이는 일들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



효천

5학년

테마독서 "과학"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<세상을 살린 10명의 용기 있는 과학자들> 레슬리 덴디, 멜 보링 / 다른

자기 몸에 실험해 세상을 살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.
마리 퀴리는 작은 라듐을 얻기 위해 팔에 붙여 치료
과정을 살폈고, 이 실험으로 방사선 치료법이 발견
되었어요. 베르너 포르스만은 자신의 심장에 가느다란
관 카테터를 집어넣었는데, 당시에는 비난을 받았지
만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치료법이 되었죠. 용기 있는
과학자들 덕분에 인간의 의학과 과학은 발전할 수
있었습니다.



"책이란

넓디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이다."

- 프랜시스 베이컨 -